

유럽의 산업유산 재활용과 지속가능성

김정후

런던대학교(UCL) 지리학과 펠로
JHK 도시건축정책연구소 소장

산업유산 재활용과 지속가능성

산업은 '인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상의 모든 활동'으로, 유산은 '앞 세대가 물려준 유·무형의 자산'으로 각각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단어의 정의를 합치면, 산업유산은 '인간의 생계 활동 과정에서 탄생한 유·무형의 자산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업유산에 포함되는 건물과 시설을 단순히 물리적 대상으로 국한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할 만한 가치를 지닌 문화재의 개념으로 확대 해석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산업유산은 특별한 기능을 위해 지은 건물과 시설이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는 뜻이다.

한편 지속가능성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맥락에서 현재 우리가 보유한 상태를 얼마나 적절히 유지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비록 지속가능성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맞물려 환경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됐으나 경제적·사회적 측면이 동일한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산업유산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유산과 지속가능성의 관계를 살펴본다.

유럽에서 산업유산의 재활용이 언제 시작됐는지에 대한 판단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개인이 건립한 창고를 개조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좁은 범위에서 산업유산의 재활용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판단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9세기를 유럽에서 산업유산의 재활용이 본격적으로 출발한 시기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 왜냐하면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새로운 기술과 재료에 기초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대규모 산업용 건물과 시설이 건립됐고, 19세기부터 이전에 지어진 산업용 건물과 시설을 헐지 않고 다른 기능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적어도 19세기에 산업유산을 재활용할 때만 해도 경제적 측면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었다. 더 이상 초기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산업용 건물과 시설을 필요한 만큼의 개·보수를 거쳐서 새로운 목적에 부합하도록 탈바꿈시켰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전 시대에 지어진 특정한 산업용 건물과 시설이 당시의 시대상과 기술력을 반영한 의미 있는 유산으로 간주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보호대상 건물로 지정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부터는 산업유산의 사회적·역사적 측면이 또 다른 중요한 판단 근거로 부각됐다.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친환경이 도시와 건축이 추구해야 할 핵심 어젠다로 자리매김하면서 새 건물을 짓는 것과는 별개로 기존 건물을 재활용하는 방식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특히 20세기 후반에는 빠르게 첨단산업이 기존 산업을 대체하면서 지난 시대에 건립된 대규모 산업용 건물과 시설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건물과 시설은 물론이고, 작게는 수천 평에서 크게는 수십만 평에 달하는 산업용 부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도시적 맥락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전면 재개발이 아닌 지역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도시계획적 맥락의 재활용이 적극적으로 시도되기 시작한 이유다.

* 김정후, 『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가』,
서울: 돌베개, 2013, p.12.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19세기 이후 유럽에서 산업유산을 본격적으로 재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핵심 개념을 단계적으로 분류하면 아래 표처럼 기능성, 역사성·지역성, 창조성, 친환경성·지속가능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네 단계 과정은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구분되기보다 일정 정도 중첩되면서 발전했고, 나라마다 중요성에 있어서 일정 정도 차이를 드러냈다.

한편 이러한 발전 단계의 마지막에 자리한 지속가능성의 경우 사실 기능성, 역사적·지역성, 창조성, 친환경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산업유산의 재활용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 장점들이 합쳐져서 21세기 도시가 추구하는 어젠다와 어우러졌음을 의미한다.

산업유산 재활용 핵심 개념의 변화와 주요 내용

단계	개념	내용
1	기능성	- 구조, 형태, 공간, 재료 등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보안을 통해 노후한 산업용 건물을 신축 건물 못지않게 합리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투입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 - 이와 같은 초기 고전적 접근 방식의 경우 산업용 건물이 가진 여타 다른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보다 해당 건물이 보유한 물리적 장점과 공간 활용성을 좀 더 높이 평가한 데 기인함.
2	역사성 / 지역성	- 기능성에 기초한 산업용 건물의 재활용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생긴 시점은 건물을 헐지 않고 리노베이션 작업을 통해 기존 건물에 내재된 역사성과 지역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임. 비록 건물 전체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지 않고 일정 부분만 유지하더라도 역사성과 지역성을 적절히 드러낼 수 있다는 접근에 기반함. 특히 특정 산업용 건물의 경우 신고전주의 양식 등 건축적으로 보존할 만한 개념이 도입된 사례들도 다수 있었음. - 도시재생 방법론 중에서 산업유산을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됨. 특정 도시가 보유한 산업용 건물은 비록 그 자체가 특별한 건축적 매력을 갖지 않더라도 해당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존재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기 때문임. - 역사성 및 지역성의 경우 교육적 측면도 중요한 역할을 함. 산업용 건물의 경우 보존을 통해 해당 지역의 산업적 역할과 공헌, 그리고 생활방식 등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함. 이는 경우에 따라 지역 교육 현장으로서의 가치를 넘어 국가적 차원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고, 이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중앙 정부와의 협력이 가능함.
3	창조성	- 두 번째 단계를 거치며 등장한 결과물의 경우 역사성과 지역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높은 수준의 디자인 아이디어와 방법론을 접목하는 것이 필요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신축 건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창적 형태와 공간, 구조 방식, 재료 사용 등이 등장함. 즉 건물을 재사용하고, 역사성과 지역성을 유지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창조적 개념이 등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특히 기존의 오래된 건물과 새롭게 첨가되는 부분과의 혁신적 결합 방식을 다양하게 시도함으로써 보편적인 건축 디자인을 통해 성취하기 어려운 창조적 아이디어를 발굴함.
4	친환경성 / 지속가능성	- 기존에 방치된 건물, 특히 대규모 산업용 건물을 전면적으로 철거하지 않고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 재활용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높은 수준의 친환경 이념을 실현하는 것으로 평가받음. - 이와 같은 접근은 건축을 넘어 도시적 맥락의 친환경성과 긴밀하게 연계되므로 중요성과 가치가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받음. 오염된 대규모 산업용 부지를 전면 재개발을 거치지 않고 사용하면서 단계적으로 정화하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함. - 최근 리노베이션에 성공한 사례들의 경우 단순히 새로운 기능을 접목하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축 건물 못지않은 친환경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이와 같은 측면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임. -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맥락에서 산업용 건물을 재활용하는 것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자리 잡음.

이러한 가운데 유네스코가 1972년부터 시행한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은 산업유산의 가치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는 전환점이 됐다. 세계유산협약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를 지닌 자산을 ‘문화 유산(Cultural Heritage)’ ‘자연 유산(Natural Heritage)’ ‘복합 유산(Mixed Heritage)’으로 세분화해 지정하는 국제적 제도를 확립했다.*

세계 문화 및 자연보호 협약 수립 이래로 해마다 수가 늘어나 2013년 현재 전 세계에 981개의 유산이 지정된 상태인데, 그중에서 60여 개의 산업유산이 문화유산의 일부에 포함됐다. 초기 세계유산이 지정될 당시만 해도 산업유산의 가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산업유산은 1990년을 전후로 지정되기 시작했고, 200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포함됐다.

초기에 문화유산에 포함된 산업유산은 1978년에 최초로 지정된 폴란드의 ‘비엘리치카 소금 광산(Wieliczka Salt Mine)’과 같은 대규모 산업부지가 주를 이루었으나, 이후에는 도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기반시설 및 기술과 연관된 유산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는 예술적 가치와는 별개로 역사적 맥락에서 삶과 연관된 건물과 시설을 인류가 마땅히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산업유산의 가치를 인식하는 전환점이 됐다.

이와 같은 유네스코의 활동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표의 두 번째 단계의 역사성·지역성의 측면을 당위성을 지원하는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즉 산업유산의 가치를 전 세계가 공유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필요한 경우 공동의 노력과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 많은 나라들에서 20세기 후반부터 유네스코의 활동과 보조를 맞추면 자국에

방치된 산업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재활용하는 법과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도시재생을 위한 원동력

20세기 후반부터 나타난 의미 있는 변화는 산업유산의 재활용이 단순히 하나의 쇠퇴한 건물을 되살리는 건축적 범위를 넘어 지역이 지닌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한 가운데 경제적으로 도시와 지역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재생 기법 중 하나로 등장한 것이다.** 즉 지역에 남아 있는 산업유산의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기 시작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특정 산업유산의 경우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했으므로, 해당 건물을 유지하는 것은 지역의 역사를 보호하고 계승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상징성을 가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20세기 후반에 유럽에서 도시재생을 선도하는 중심 방향이 ‘문화’로 설정되면서 산업유산 재활용과 더욱 긴밀한 상관성을 갖게 됐다. 즉 기존의 방치된 산업용 건물과 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재활용하는 방식이 활발하게 진행됐고, 나아가 기존에 쇠퇴한 산업지역 일대를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사용하는 성공적 사례와 프로그램도 등장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쇠퇴한 산업용 건물과 시설을 적절히 보호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점에서 각광받았다. 특히 방치된 산업용 건물의 상당수를 보호용 건물로 지정한 경우 활용 방식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문화공간으로의 전환은 실현 가능한 적절한 방법으로 여겨졌다. 나아가 대규모 재개발을 시행하지 않고 도시의 변화와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쇠퇴한 산업도시의 경우 효과적인 도심 활성화 수단으로 여겨졌다.

*

UNESCO,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972, p.1.

**

Walljes, I. and Ball, R., Exploring the Realities of the Sustainable City through the Use and Reuse of Vacant Industrial Buildings, European Environment, Vol.7, 1977, p.195.

Hospers, G.J., "Industrial Heritage Tourism and Regional Restructuring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Planning Studies, Vol.10, No. 3, 2002, pp.398-399.

산업유산의 재활용이 문화 주도 도시재생에 결정적 기여를 하면서 산업유산 재활용의 범위가 더욱 다양화됐다. 산업용 건물과 시설로 가득 찬 부지를 기존에 수목이 울창한 공원과는 또 다른 차원의 ‘도시형 공원(Landscape Park)’으로 바꾸는 방식을 선보이는가 하면 산업유산을 문화시설을 넘어 주거·상업·업무·여가·공공 공간으로까지 전환시키는 사례들이 등장했다. 이와 같은 확대는 결국 산업유산이 궁극적으로 기존의 한계를 넘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접근에는 네 가지의 분명한 이유가 존재한다.

첫째, 건물의 기능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유럽에서 산업혁명 이후 지어진 산업용 건물의 경우 구조와 재료 사용에 있어서 견고하고 안정적이다. 따라서 비록 100~200년 지난 건물일지라도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산업용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정형화된 형태와 대공간을 가진 건물이 보편적이다. 이러한 특징은 새로운 기능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의 변형이 용이함을 의미한다.

셋째, 산업용 건물과 산업단지의 경우 물류 수송과 긴밀한 연계를 위해 강 주변 등을 포함해 도시의 교통 요충지에 자리한 경우가 많다. 즉 다른 기능으로 전환했을 때 지형적으로 활용 가능한 이점이 많음을 의미한다.

넷째, 단일 건물이 아닌 대규모 산업단지의 경우 넓은 부지-경우에 따라 녹지를 포함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공공을 위한 공간으로의 활용성이 매우 높다.

한편 산업유산을 문화주도 도시재생으로 시행하며 활용하는 방식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더욱 진화해 발전하는 중이다. 문화가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문화주도 도시재생은 곧 창조도시를 구축하는 작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됐다. 즉 초기에 문화가 쇠퇴한 산업도시를 재활용화하는 기폭제와 같은 역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쇠퇴한 산업유산이 다양하게 활용됐다면 이후에는 창조도시를 선도하는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도시재생적 관점에서 판단하면 산업유산은 창조도시를 만드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주요 사례

규모 면에서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산업유산의 재활용 사례는 작은 단일 건물에서 대규모 산업단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도시철도, 양조장, 가스공장, 가스저장고, 탄약공장, 감옥, 발전소, 제철소, 보일러실, 탄광, 항구, 제빵공장, 도축장, 조선소, 공장 등이고, 이러한 사례들에 부여된 새로운 기능도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공연장, 상가, 사무실, 학교, 아파트, 아틀리에, 호텔, 식당, 공원, 산책로, 놀이시설, 체육시설, 휴게시설 등으로 무척 다양하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설명한 바와 같이 산업유산의 재활용이 도시재생과 보다 긴밀하게 연계되면서 주요한 성공 사례들의 경우 건축 디자인의 범위를 넘어 도시계획적 차원으로 넘어가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 여섯 가지의 핵심을 살펴본다.

※※※※※

Bayliss, D., "The Rise of the Creative City: Culture and Creativity in Copenhagen", European Planning Studies, Vol.15, No.7, 2007, p.891.

※※※※※

김정후, 『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가』, 서울: 돌베개, 2013, p.7.

산업유산 재활용 주요 사례의 배경과 핵심 내용

프로젝트	배경	핵심 내용
프롬나드 플랑테 (1993년)	- 파리 12구 지역에 물류 수송을 위해 건립된 도시철도가 1969년에 폐선됨. 4.5km에 달하는 폐선 부지 주변은 환경오염과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함. - 지상에서 10m 높이에 건설된 일부 고가 선로 구간의 경우 시각적으로 도시의 미관을 크게 해침.	1984년에 자크 베겔리와 필리페 마티오가 폐선 부지 전체를 공원 및 산책로로 바꾸는 계획을 수립해 1993년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공중 산책로’가 탄생함. - 폐선 부지의 구조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하고, 산책을 할 수 있는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시킴. - 화려하기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조경과 연못 등을 조성해 기존에 파리에 존재하는 화려한 정원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역동적 도심형 친환경 공공공간을 조성함. 10m 높이에 조성된 산책로는 파리 시내를 내려다보는 독특한 도시 조망대의 역할을 수행함. 1987년에 산책로와 별개로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과 뤼이 공원 사이의 1.4km 고가 철로 구간에 대한 별도의 현상설계를 실시했고, 당선자인 패트릭 베르제가 새로운 문화예술 및 상업 공간으로 리노베이션한 ‘예술의 다리’를 완성함. - 프롬나드 플랑테는 폐선 부지를 활용해 공공성과 상업성을 갖춘 독특한 도시재생 성공을 실현함.



뒤스부르크 환경공원 (1997년)	- 라인 강변에 60만 평의 부지를 차지하며 자리한 티셀 제철소가 1985년에 문을 닫고 방치됨. - 경제적으로 뒤스부르크 지역 전체의 쇠퇴를 야기함. - 경제적 쇠퇴와 더불어 철강공장 시설과 운송 철로, 수로, 굴뚝, 고철 더미 등으로 주변 일대가 심각하게 오염됨.	1989년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정부에서 도시계획가, 건축가, 조경가, 환경전문가, 사회학자 등을 주축으로 엠서 공원 건축박람회를 개최해 대안을 모색함. - 루르 강에 인접한 17개 산업지역을 중심으로 1989년부터 10년 단위로 30년 동안의 중장기 재생 계획을 수립함. - 피터 라츠의 현상설계 당선안을 통해 산업유산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도시공원과 생태 보전을 접목한 도시공원(Landscape Park) 개념 정립. - 기존 쇠퇴한 산업시설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해 새로운 형식의 테마 공원을 조성. - 부지 전체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휴식, 여가 활동, 행사 등이 가능한 다목적 공공공간으로 조성. - 조너선 파크의 조명 디자인을 통해 기존의 낡은 산업 시설에 야간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야간에도 운영이 가능한 도시공원으로 탈바꿈.
--------------------------	---	---



카를스루에
미디어
아트센터
(1997년)

- 1914년에서 1918년 사이에 완공된 길이 312m의 탄약공장이 1970년에 완전히 문을 닫음.
- 대규모 공장 시설의 적절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됨.
- 필리프 자코브 멘스가 디자인한 건물은 건축적으로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받음.

- 초기에 화가, 조각가, 음악가 등이 모여 작업실로 사용하기 시작함.
- 카를스루에가 지닌 과학기술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활용해 미디어아트를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설정함.
- 5층 높이에 10개의 직사각형 아트리움으로 덮인 탄약공장 건물의 건축적·공간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미디어아트센터로 재활하는 계획을 수립해 1997년에 세계 최대 규모의 미디어아트센터로 새롭게 태어남.
- 기존 탄약 공장 건물의 공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박물관, 대학 연구기관, 극장, 강의실, 실험실, 자료실, 이벤트 홀, 시립미술관, 디자인 학교 등을 동시에 유지함.
- 개방된 아트리움 공간을 전시 및 행사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함.
- 파란색 투명 유리로 디자인한 블루 큐브는 음악 및 음향학부가 자리하고, 유일하게 새롭게 디자인해 옛 것과 새 것의 조화를 표현함.



가소메타 시티
(2001년)

- 빈 시는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위해 도시 외곽의 짐머링 지역에 1899년에 대규모 가스저장고 4개 동을 완공함. 1개의 크기가 폭 70m, 높이 80m에 달함.
- 천연가스 도입 이후 가스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1986년에 완전히 문을 닫음.
- 문을 닫자마자 건물 자체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보존 건물로 지정함.

- 빈 시가 주도해 4개의 가스저장고를 재활용하는 방식을 논의했으나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함.
- 문화예술 시설 등으로 바꾸는 기존의 보편적 방식에서 탈피해 가장 중요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최종 확정함.
- 4명의 건축가에게 각각 한 동씩 디자인을 의뢰하면서 외관은 전혀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저장고 내부에 주거 공간을 디자인하도록 해 2001년에 완공함.
- 지하에 문화예술, 상업, 업무 등의 시설과 공간을 설치함으로써 완벽한 하나의 도시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함. 지하의 경우 개방된 천장을 통해 빛이 내부로 들어오므로 매우 밝은 공간을 연출함으로써 기존 가스저장고의 형태를 최대한 활용함.
- 가소메타 B동에는 철과 유리를 주재료로 하고 캔틸레버 구조를 사용해 파격적인 형태의 기숙사 건물을 디자인해 기존 가스저장고와 대비시킴으로써 진화하는 빈의 정체성을 표현함.



베스터
가스공장
문화공원
(2003년)

- 1895년부터 단계적으로 완공된 베스터 가스공장은 4만 3000평의 부지를 차지하고 암스테르담의 교통 요충지에 조성됨.
- 대체 연료의 등장으로 가스 사용량이 줄어들었고 1967년에 완전히 문을 닫음.
- 기름과 타르 등으로 부지 전체가 크게 오염됨.

- 베스터 가스공장이 문을 닫았지만 부지 내에 남은 13채의 건물을 산업유산으로 지정해 엄격하게 보호함.
- 1981년에 암스테르담 시는 기존 가스공장 건물을 재사용하면서 부지 전체를 문화공원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수립 · 발표함.
- 단시간에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하면서 장기적으로 공원의 생태 환경을 복원하는 계획을 수립함. 이를 위해서 단지 내에 우선적으로 사용 가능한 건물과 장소를 예술 작업장 및 전시 공간으로 임대함.
- 현상설계를 통해 당선한 캐서린 구스타프슨은 단순히 아름다운 공원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연과 어우러지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환경공원을 디자인함.
- 환경공원 조성 과정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함.
- 직경 60m의 원형 가스저장고는 콘서트, 파티, 뮤지컬, 패션쇼 등의 다양한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바꾸는 등 기존 부지 내의 건물에 모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 재활용함.
- 2003년에 문화, 자연, 여가활동이 가능한 21세기 도시형공원으로 새롭게 탄생함.



출퍼라인
탄광
(1996~
2010년)

- 하루에 1만 2000톤의 석탄을 생산하던 독일 최대의 탄광인 출퍼라인 탄광이 1986년에 완전히 폐광됨.
- 폐광 후 부지 및 주변 일대의 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 도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확산됨.
- 부동산 투자개발회사에서 매입해 전면 재개발을 시도했으나 베스트팔렌 주 정부가 탄광시설 보호에 적극적이었음.

- 베스트팔렌 주정부의 노력으로 폐광 후 출퍼라인 탄광이 산업적 · 건축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예센 지역 보존 건물로 지정됨.
- 1989년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정부가 주도한 엠서 공원 건축박람회에서 티센 제철소와 더불어 재활용 및 재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함.
- 1998년에 주 정부의 노력으로 출퍼라인 탄광의 역사적 · 건축적 ·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
- 1996년에 노먼 포스터가 12면 수직강도 안쪽에 자리한 박스 형태의 보일러실을 리노베이션해 레드닷 디자인 박물관을 완성했고, 2010년에 램 콜하스가 석탄 세척 공장을 재활용해 루르 박물관을 완성함.
- 기존 부지 내의 각종 시설을 방문객이 활용 가능한 공공공간으로 꾸미는 동시에 산업시대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함.
- 2006년에는 부지 아래쪽에 출퍼라인 경영 및 디자인 대학을 건립해 보다 적극적으로 출퍼라인 탄광을 기업 및 교육과 연계함.



유럽 산업유산 재활용의 교훈

산업유산의 재활용은 산업혁명으로 산업용 건물과 시설을 먼저 건립한 유럽의 주요 대도시들이 주도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유럽의 선진 도시들이 산업유산을 재활용하는 흐름과 방식을 살피고 이를 통해 교훈과 방법론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유럽의 산업유산 재활용 과정과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산업유산의 재활용은 단순히 건축적 맥락을 넘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도시에 남은 산업유산의 상당수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산업유산의 재활용은 도시의 정체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접근돼야 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을 점유한 대규모 산업유산의 경우 문화 및 첨단산업을 위한 성장거점으로 재활용하는 방식이 강구돼야 한다.

둘째, 산업유산의 재활용은 유행을 따르기보다 철저하게 해당 지역의 특성을 전제로 개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유산 본래의 기능, 재활용 과정, 최종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름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성공적 결과를 낳았다. 이는 산업유산의 재활용이 결코 손쉽게 유행을 따르는 방식에 의해서 성공하기 어려움을 방증한다.

셋째, 산업유산 재활용의 경우 대부분이 지방정부 산하의 부지나 시설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산업유산을 완전히 헐지 않고 최대한 재활용을 통해 재개발 이상의 성과를 거두는 방식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수립 및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 내에 존재하는 산업유산을 보호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을 수립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산업유산 재활용은 지역에 방치된 산업용 건물과 시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앞서 소개한 사례들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초기부터 최종 결과물이 탄생하기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성공적 결과를 낳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산업유산의 재활용이 경제적 · 사회적 · 환경적 맥락을 아우르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성취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임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김정후, 「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가」, 서울: 돌베개, 2013
- 2 Bayliss, D., "The Rise of the Creative City: Culture and Creativity in Copenhagen", *European Planning Studies*, Vol.15, No.7, pp.889-903, 2007
- 3 Hospers, G.J., "Industrial Heritage Tourism and Regional Restructuring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Planning Studies*, Vol.10, No. 3, pp.397-404, 2012
- 4 UNESCO,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UNESCO, 1972
- 5 Walljes, I. and Ball, R., "Exploring the Realities of the Sustainable City through the Use and Reuse of Vacant Industrial Buildings", *European Environment*, Vol.7, pp.194-202, 1997